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차이 연구*

송 원 숙**

초 록

이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개방적인 가족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치사회화를 높여주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 학업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적용한 가족 의사소통을 새롭게 제안했다. 따라서 가족 의사소통을 대화의 구조(개방적 의사소통 VS 폐쇄적 의사소통)와 대화의 내용(인성중심적 의사소통 VS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모습이 어떠한지 경험적으로 관찰했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른 4개의 가족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에 무관심한 <방임적 가족>의 유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반면, 부모가 권위적이면서 학업을 중요시하는 <폐쇄적+성공중심적 가족>의 유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의 모습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면, 학업을 강조하는 <개방적+성공중심적 가족> 유형에서의 자녀들은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임적 가족>의 자녀들은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원활한 가정에서의 학업과 성공 중심의 대화는 자녀에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와 관련된 함의가 함께 논의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가족 의사소통, 정치사회화

* 이 논문은 저자의 2017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양승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고비마다 응원해주신 숙명여자대학교의 강형철 교수님, 안민호 교수님, 양승찬 교수님, 심재웅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춘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숙고의 기회를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 athene@sm.ac.kr

I. 서 론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주중에 부모와 대화를 1시간도 나누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고,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약 7%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나라 가정에서 대화의 감소 및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통계청, 2016). 가족 간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는 권위적이고 일방향적으로 대화를 하고(류성진, 2009),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와 TV, 게임, 스마트폰 이용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가 압도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학업성적과 관련해서 자녀를 간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철, 김은정, 민정석, 2007). 요컨대 실제 우리나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지형에는 대화의 부재와 감소, 혹은 폐쇄적이고 일방향적인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대화의 소재도 주로 공부와 관련됨으로서 단편적이고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화와 정치사회적 역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Huntemann & Morgan, 2001)로, 특히 가족(the family)은 청소년기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정치사회화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Langton, 1969; Quintelier, Hooghe & Badescu, 2007). 대개의 경우 부모와 자녀는 비슷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견해나 정서를 갖게 된다(Tedin, 1974). 정치적 견해 뿐 아니라 규범, 가치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의식, 사회에 대한 보편적 믿음, 시민 참여, 시민적 관용성, 심지어 자민족 우월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부모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Tedin, 1974).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차이는 개인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정치사회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보편적인 청소년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의사소통의 지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McLeod와 Chaffee(1972)의 가족 의사소통 연구(family communication patterns)를 바

탕으로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한 효과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손지혜, 박승관, 2013; 송원숙, 심재웅,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구조적 측면(개방적 VS 폐쇄적)과 내용적 측면(인성중심적 VS 성공중심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적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기반으로 가족의 유형을 구분했을 때, 청소년 자녀의 정치사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어느 유형인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 의사소통이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재확인하고, 자녀의 정치사회화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할 기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란 미시적 차원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양식과 정치문화, 지식, 가치, 태도를 학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고(Almond & Verba, 1963; Gimpel, Lay & Schuknecht, 2003; Moeller & de Vreese, 2013), 거시적 차원으로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치관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에 정치문화를 계승하는 과정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아동·청소년기(Sear & Levy, 2003)이다. 10세 전후의 초등학교 2·3학년 연령이 되면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상징적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10세 이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연령이 되면 ‘참여’와 ‘대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선거와 정부, 의회에 대해 더욱 뚜렷이 알게 된다(Easton & Dennis, 1973; Meadowcroft, 1986 재인용). 정치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정향성은 대략 10세 전후의 아동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까지 발달하고(Gallatin, 1980; Gallatin & Adelson, 1970), 성인이 되어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Huntemann & Morgan, 2001).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기본적 원

리'(the primary principle)와 먼저 배운 것에 따라 그 다음 배울 것이 결정된다는 '구조적 원리'(the structuring principle)에 근거해서, 정치사회화 과정에는 결국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주장되어 왔다(Searing, Schwartz & Lind, 1973).

그러나 지금껏 정치사회화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정치과정에서 정치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온 까닭에(금희조, 조재호, 2015),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치사회화 개념으로 확대해서 학문적 논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민주적 시민의 역량으로 시민성, 사회적 자본, 시민의식, 다문화 포용성, 양성평등, 인권 등이 다양하게 제시된다(장근영, 박수익, 장지영, 2011). McLeod(2000)는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숙의성(thoughtful processing of information),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경청(listening to diverse points of view), 토론을 통한 의견 변화(taking turns in discussions), 타협을 통한 합의(working out compromises) 등이 민주주의 사회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치사회화의 개념으로 적용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Langton과 Jennings(1968)는 정치사회화를 정치적 관심, 정치효능감, 공적 관용성, 참여적 성향으로 유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견추구성향, 관용성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이견추구성향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교환되고, 합의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이자 민주주의 시민성의 하나로 제시된다(황용석, 양승찬, 이준웅, 이원태, 2011).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가능하게 된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과 다른 정치사회적 의견을 읽는지, 혹은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태도는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견해와 같은 의견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의견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에서 정치지식, 정치참여, 정치토론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황용석 외, 2011). 이견 노출을 통해 발생한 양가적 태도는 정치참여에는 부정적이지만, 상대에 대한 관용은 증가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Barabas, 2004; Mutz, 2002; Price, Capella & Nir, 2002; 김은미, 이준웅, 2006; 최윤정, 이종혁, 2012).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시민적 역량으로 관용성을

핍을 수 있다. 관용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현전할 경우 인내를 가지고 참는 태도’(조영제, 1997; 이종혁, 최윤정, 조성검, 2015 재인용)이자,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된다(최윤정, 이종혁, 2012; 황용석 외, 2011; 조윤경, 정일권, 2013). 단순히 묵인이나 불간섭과 같은 소극적 수준을 넘어 다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태도와 상호교류를 포함한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이동훈, 2009). 즉 관용은 자신과 이질적인 생각을 갖는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질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관용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다(Sullivan, Marcus, Feldman & Piereson, 1981).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단적 편향과 대립적 상황이 자주 등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상호 대립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일지라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관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갈등과 다원성의 민주주의 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치사회화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참여, 정치효능감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사회화 개념 이외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을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사회화 개념으로 제안했다.

2. 우리나라의 가족 의사소통

가족은 개인이 속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다. 청소년의 시민성이나 정치사회화에 관한 논의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가정환경은 중요한데(김위정, 2012), 특히 우리나라 교육중심의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가정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임정아, 1996). 다양한 가족 요인들 중에서도, 가족 의사소통은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준거의 틀로 작용함으로써(Meadowcroft, 1986), 자녀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다(Chaffee, McLeod & Wackman, 197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방적인 가족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한주리, 허경호, 2005), 능동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사회화 발달에 영향을 준다(한주리, 허경호, 2005; 류성진, 2009). 뿐만 아니라, 부

모와 자녀의 개방적 대화의 모습은 자녀의 정치사회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Chaffee et al., 1973), 부모와의 의사소통 행위가 청소년의 정치정향성 형성의 주요 경로이자 동기부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Quintelier et al., 2007).

그런데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서로 다른 의견일 때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등 대화과정에서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정도가 가족 의사소통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송원숙, 심재웅, 2018).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학업과 성공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가, 그와는 반대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과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가 하는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규범과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덕과 규범, 인성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신호재,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cLeod와 Chaffee(1972)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가족 의사소통 모습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을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개방적 의사소통),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는지(폐쇄적 의사소통),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학업을 강조하는지(성공중심적 의사소통), 인성을 강조하는지(인성중심적 의사소통)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서 가족 의사소통을 새롭게 개념화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의사소통의 모습을 파악하며, 가족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자녀의 정치사회화의 모습에 대해 탐색해보기로 한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바탕으로 분류된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017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만 13세~18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집과 온라인 설문은 국내의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진행했다.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을 실행해 온라인 설문문항의 사이트 링크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총 520명의 응답값을 얻었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의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양 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1) 정치사회화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정치사회화를 다음과 같은 하위차원-정치관심, 정치참여,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1) 정치관심

정치관심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① 학생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M=3.68$, $SD=1.03$), ② 학생

은 5월 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M=3.92$, $SD=1.03$)으로 질문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을 합산평균해서 ‘정치관심’ 지수로 사용했다($M=3.80$, $SD=1.0$, Cronbach's $\alpha=.84$).

(2) 정치참여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과정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뉴스를 본 후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해 본 일들이 무엇인가요?’로 질문한 뒤, 다음의 각 문항을 제시했다. ① 직접 글을 올려 나의 의견과 주장을 표명했다, ② 온라인/오프라인 친구들과 의견이나 정보, 기사를 교환했다, ③ 뉴스기사나 사진, 동영상을 퍼오거나 링크했다, ④ 주변사람들에게 기사나 관련사진을 보내보았다, ⑤ 댓글로 동의나, 반대, 좋아요 클릭 등으로 나의 의견을 표명했다, ⑥ 지지 혹은 반대하는 서명운동,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⑦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⑧ 정치 관련 홍보물, 배너, 버튼 또는 스티커 붙이기를 했다, ⑨ 대안언론매체나 지지단체에 후원금을 보냈다 등 총 9개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 전혀 하지 않았다~5: 자주 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들의 합산평균값을 ‘정치참여’ 지수로 사용했다($M=2.56$, $SD=.88$, Cronbach's $\alpha=.89$).

(3) 정치지식

정치지식은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정부기관 등에 관한 항목과 시사 이슈에 관한 항목을 골고루 포함한다(Kenski & Stroud, 2006). 본 연구에서 정치지식은 중·고등학교 정치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과 설문조사 당시 두드러지게 이슈화되었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했다. 따라서 ① 헌법상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 ②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③ 현재 여당의 이름, ④ 현재 최저임금수당에 관한 4개 문항에 대해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은 0점을 부여했다. 바르게 응답한 문항의 합산값을 ‘정치지식’의 점수로 삼았다($M=2.29$, $SD=.99$).

(4)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스스로 ‘나는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효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금희조와 조재호(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① 나는 앞으로 정치에 참여(투표나 촛불시위 등)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③ 나는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④ 나는 다른 사람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있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⑤ 나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고 싶다 등 총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들의 합산평균값을 ‘정치효능감’ 지수로 사용했다($M=3.50$, $SD=.86$, Cronbach's $\alpha=.88$).

(5) 이견추구성향

본 연구에서는 이견추구성향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기꺼이 노출하고 이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해, 선행연구(황용석 외, 2011; 조윤경, 정일권, 2013)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① 나는 온라인에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른 의견도 읽는다, ② 온라인에서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한다, ③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 있다 등 진술에 해당하는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총 3개 문항의 합산평균값을 ‘이견추구성향’ 지수로 사용했다($M=3.30$, $SD=.89$, Cronbach's $\alpha=.89$).

(6) 관용성

관용성이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나 의견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관용은 특정한 이슈와 관계없는 일반적 관용을 의미한다. 최윤정과 이종혁(2012)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설문문항을 제시했다. 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편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② 나

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한다. 해당 문항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했다. 총 3개 문항의 합산평균값을 ‘관용성’ 지수로 사용했다($M=3.59$, $SD=.66$, Cronbach's $\alpha=.72$).

2) 가족 의사소통 양식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1) 부모와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가, (2) 부모와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했다. 첫째, 대화 구조의 경우, McLeod와 Chaffee(1972)의 변인을 재해석한 Ritchie와 Fitzpatrick(1990)의 개정된 가족 의사소통 양식(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instrument; RFCP) 설문문항을 차용해서 ‘개방적 의사소통’ 양식 12개 문항과 ‘폐쇄적 의사소통’ 양식 11개 문항을 포함,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둘째, 대화 내용의 경우, 손지혜와 박승관(2013)의 연구를 차용해서, 인격과 인성의 함양을 중시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의 6개 문항과 공부와 대학, 경쟁을 강조하는 ‘성공중심적 의사소통’ 6개 문항을 포함,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가족 의사소통 양식의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양식 측정문항은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 항목을 제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을 문항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공통성($h^2=communality$) 역시 0.40 이상을 문항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응답의 탐색적 요인분석 후, 총 35개 문항 중에 9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26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이론구조에 맞게 4개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개방적 의사소통’ 9개 문항($M=3.49$, $SD=.82$, Cronbach's $\alpha=.92$), ‘폐쇄적 의사소통’ 6개 문항($M=3.18$, $SD=.84$, Cronbach's $\alpha=.88$), ‘인성중심적 의사소통’ 5개 문항($M=3.63$, $SD=.73$, Cronbach's $\alpha=.83$), ‘성공중심적 의사소통’ 6개 문항($M=3.20$, $SD=.91$, Cronbach's $\alpha=.89$)을 각각의 가족 의사소통 양식의 지수화에 이용할 문

항으로 선정하였다. 각 항목 간 합산평균값을 개별 의사소통 양식의 지수로 삼아 연구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가족 의사소통 양식의 요인분석 결과

	항목	평균	신뢰도
개방적	① 부모님은 다른 가족들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신다.	3.49	.92
	② 부모님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도전하라고 나를 격려해준다.		
	③ 나는 어떤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부모님께 말할 수 있다.		
	④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부모님께 솔직히 말할 수 있다.		
	⑤ 우리 가족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다.		
	⑥ 부모님과 나는 별 것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⑦ 나는 부모님과 서로 의견이 달라도 즐겁게 이야기한다.		
	⑧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달라도 내 의견을 잘 들어준다.		
	⑨ 부모님은 내 느낌을 표현하라고 격려해준다.		
폐쇄적	① 부모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묵묵히 따라줄 것을 기대한다.	3.18	.88
	② 가족끼리 대화에서는 부모님끼리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		
	③ 부모님은 우리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가장 어른(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④ 부모님은 내 생각이 부모님과 다르면 가끔 화를 내신다.		
	⑤ 부모님은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⑥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이 정한 규칙대로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항목	평균	신뢰도
인 성 중 심 적	① 부모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② 부모님은 결과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③ 부모님은 정직, 책임감 등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3.63	.83
	④ 부모님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매우 강조하신다.		
	⑤ 부모님은 이웃과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성 공 중 심 적	① 부모님은 내가 항상 남보다 앞서 나가길 바라신다.		
	② 부모님은 나의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의 성적과 내 성적을 비교하시곤 한다.		
	③ 부모님은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④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공부, 성적, 대학에 관한 이야기이다.	3.20	.89
	⑤ 부모님은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신다.		
	⑥ 부모님은 돈과 성공, 학벌과 직업이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를 위해 수집된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 계수로 사용했다. 크론바 알파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화,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관한 문항이 모두 0.7 이상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했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상관관계가 깊은 여러 변인들 안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발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인들을 축소해서 의미있는 변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추출된 요인들의 독립성을 가정하여 직각회전(varimax) 방법을 선택했다.

셋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해서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의 유형을 도출했다. 가족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의 개념지향적(개방적, concept-oriented communication), 사회지향적(폐쇄적, socio-oriented communication) 양식의 평균값을 높고 낮음으로 상호교차해서 가족의 유형을 분류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4개의 차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평균의 높고 낮음으로는 가족의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상이한 특징을 가진 대상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군집분석을 이용해,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른 가족의 유형을 도출했다. 군집분석은 여러 변인을 이용하여 집단을 찾아낼 때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연구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 혹은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질지 예상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넷째, 도출된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했다. 그 외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이 추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응답자 52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 259명(49.8%), 여학생 261명(50.2%)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9명(1.7%), 2학년 48명(9.2%), 3학년 141명(27.1%), 고등학교 1학년 89명(17.1%), 2학년 107명(20.6%), 3학년 126명(24.2%)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98명(38%)보다 고등학생 322명(62%)의 수가 많았다. 경제적 형편은 대다수가 중간이상(68.3%)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은 아버지 268명(51.5%), 어머니 233명(44.8%)

으로 나타났다. 부모직업의 유무에 있어서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520)

측정변인	구분	단위 N (%)
성별	남	259 (49.8)
	여	261 (50.2)
학년	중학교 1학년	9 (1.7)
	중학교 2학년	48 (9.2)
	중학교 3학년	141 (27.1)
	고등학교 1학년	89 (17.1)
	고등학교 2학년	107 (20.6)
	고등학교 3학년	126 (24.2)
경제적 형편	어렵다	110 (21.2)
	중간	245 (47.1)
	풍족하다	165 (31.8)
아버지 학력	학교에 안다님	2 (0.4)
	초등학교 졸업	10 (1.9)
	중학교 졸업	15 (2.9)
	고등학교 졸업	189 (36.3)
	2년제 대학 졸업	36 (6.9)
	4년제 대학 졸업	196 (37.7)
	대학원 졸업	72 (13.8)
어머니 학력	학교에 안다님	2 (0.4)
	초등학교 졸업	4 (0.8)
	중학교 졸업	20 (3.8)
	고등학교 졸업	222 (42.7)
	2년제 대학 졸업	39 (7.5)
	4년제 대학 졸업	192 (36.9)
	대학원 졸업	41 (7.9)
아버지 직업 유무	유	498 (95.8)
	무	22 (4.2)
어머니 직업 유무	유	368 (70.8)
	무	152 (29.2)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인 가족 의사소통 양식과 자녀의 정치사회화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치참여($r=.13, p<.01$), 정치효능감($r=.13, p<.01$), 이견추구성향($r=.10, p<.05$), 관용성($r=.21, p<.01$)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은 정치관심($r=.16, p<.01$), 정치효능감($r=.19, p<.01$), 이견추구성향($r=.18, p<.01$), 관용성($r=.19, p<.01$)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은 정치참여($r=.16, p<.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폐쇄적 의사소통은 정치사회화 변인과의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가족 의사소통 양식과 정치사회화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개방적	-									
폐쇄적	-.37**	-								
인성중심적	.52**	.09*	-							
성공중심적	-.13**	.52**	.05	-						
정치참여	.13**	.08	.07	.16**	-					
정치지식	.08	.00	.09	.04	.01	-				
정치관심	.08	.04	.16**	.03	.31**	.19**	-			
정치효능감	.13**	.03	.19**	.07	.40**	.56**	.71**	-		
이견추구성향	.10*	.07	.18**	.04	.42**	.16**	.64**	.63**	-	
관용성	.21**	.05	.19**	.01	.16**	.04	.27**	.31**	.45**	-

(1.개방적 의사소통, 2.폐쇄적 의사소통, 3.인성중심적 의사소통, 4.성공중심적 의사소통, 5.정치참여, 6.정치지식, 7.정치관심, 8.정치효능감, 9.이견추구성향, 10.관용성)

* $p < .05$, ** $p < .01$

3.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른 가족의 유형화

[연구문제 1]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정에서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의 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상호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개방적 의사소통’, 자녀와의 대화가 권위적이고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면 ‘폐쇄적 의사소통’, 공부와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성공중심적 의사소통’, 규범과 사람의 됬됨이에 가치를 두면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4개의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어떠한 가족의 유형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가족 의사소통 양식의 요인점수를 활용한 군집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군집>은 ‘개방적 의사소통’과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이 동시에 나타나는 집단이다. 즉 자녀의 의견이 부모와 달라도 언제든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됬됨이를 강조하는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이 보이는 가정이다. 특히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군집>은 ‘폐쇄적 의사소통’과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함께 보이는 집단이다. 가족끼리의 대화에서는 주로 부모가 결정을 내리고,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부모가 역정을 내기도 하는 권위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면서, 동시에 공부, 성적,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가정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대화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체 조사대상의 약 17.5% 가량이 <2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체 가족의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군집>은 ‘개방적 의사소통’과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이 함께 나타나는 집단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존중해주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학벌과 직업, 성공에 관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1군집>이 매우 이상적인 가족이라면, <2군집>은 그 반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1군집>과 <2군집>이 양 극단의 모습을 보인다면, <3군집>은 적절하게 혼합된 형태로써, 우리나라 평범한 가정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군집〉은 모든 가족 의사소통 양식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 무관심한 방임적 가족이다. 〈4군집〉은 전체 응답자 중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군집별 사례 수 (N=520)

군집	유형	사례 수 (명)	비율 (%)
1	개방적 + 인성중심적	127	24.4
2	폐쇄적 + 성공중심적	91	17.5
3	개방적 + 성공중심적	130	25.0
4	방임적	172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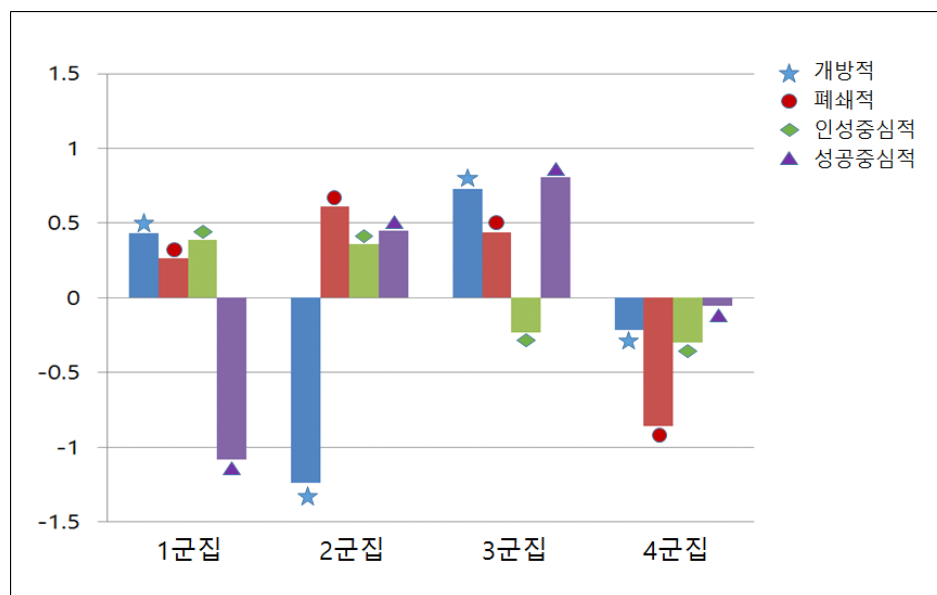


그림 1. 가족 유형에 관한 군집분석

2) 연구문제 2: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정치사회화 차이

[연구문제 2]에서는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바탕으로 분류된 4개의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정치관심, 정치참여,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가족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했다.

독립표본과 오차변량의 동질성, 공변량의 동질성 전제를 검증한 후, MANOVA 모델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추가로 ANOVA 모델의 유의도와 판별함수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표본의 수가 달라도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모든 집단의 공변량이 같기 때문에 MANOVA를 사용할 수 있었다. Pillai 트레이스(trace)= .069, $F(12, 1545)$, $p < .05$, Wilks 람다(lamda)= .932, $F(12, 1357)$, $p < .05$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치관심과 정치지식을 제외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참여의 경우, <3군집>이 가장 높고($M=2.83$), <2군집>이 가장 낮게($M=2.40$) 나타났다($F(3, 516)=6.23$, $p < .01$). 사후분석 결과, <3군집>은 나머지 <1군집>, <2군집>, <4군집>과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정치효능감의 경우 <1군집>과 <3군집>이 가장 높고($M=3.61$), <4군집>이 가장 낮게($M=3.34$) 나타났다($F(3, 516)=3.51$, $p < .05$). 이견추구성향은 <3군집>이 가장 높았으며($M=3.43$), <4군집>이 가장 낮은($M=3.14$) 것으로 나타났다($F(3, 516)=3.10$, $p < .05$). 관용성의 경우 <3군집>이 가장 높고($M=3.73$), <4군집>이 가장 낮은($M=3.43$) 것으로 확인되었다($F(3, 516)=5.91$, $p < .01$). 사후분석 결과 <4군집>과 <1군집>, <3군집>이 다른 집단임이 밝혀졌다. 정치효능감과 이견추구성향의 사후분석 결과에서 집단이 통계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4군집>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3군집>의 자녀들은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군집>의 자녀들도 정치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군집>의 자녀들은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가장 낮고, <2군집>의 자녀들은 정치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가족유형에 따른 정치사회화 다변량분석

		정치관심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3.90	.89	3, 516	1.41
	2군집 (폐쇄+성공)	91	3.74	1.10		
	3군집 (개방+성공)	130	3.85	.90		
	4군집 (방임)	172	3.70	.98		
		정치참여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2.49 ^b	.85	3, 516	6.23**
	2군집 (폐쇄+성공)	91	2.40 ^b	.88		
	3군집 (개방+성공)	130	2.83 ^a	.87		
	4군집 (방임)	172	2.47 ^b	.87		
		정치지식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2.31	.94	3, 516	1.12
	2군집 (폐쇄+성공)	91	2.18	1.10		
	3군집 (개방+성공)	130	2.40	.97		
	4군집 (방임)	172	2.22	1.00		
		정치효능감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3.61	.75	3, 516	3.51*
	2군집 (폐쇄+성공)	91	3.45	.97		
	3군집 (개방+성공)	130	3.61	.87		
	4군집 (방임)	172	3.34	.86		
		이견추구성향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3.38	.89	3, 516	3.10*
	2군집 (폐쇄+성공)	91	3.25	.89		
	3군집 (개방+성공)	130	3.43	.90		
	4군집 (방임)	172	3.14	.90		
		관용성				
		<i>N</i>	<i>M</i>	<i>SD</i>	<i>df</i>	<i>F</i>
가족유형	1군집 (개방+인성)	127	3.67 ^a	.65	3, 516	5.91**
	2군집 (폐쇄+성공)	91	3.54	.74		
	3군집 (개방+성공)	130	3.73 ^a	.62		
	4군집 (방임)	172	3.43 ^b	.66		

주: 서로 다른 첨자 a, b는 사후분석 결과 다른 그룹을 의미함.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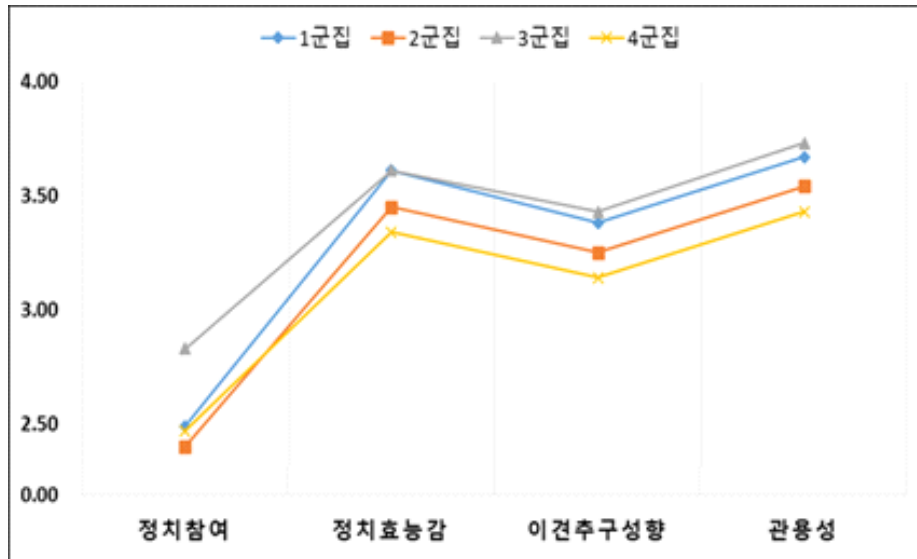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정치사회화 차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각 군집별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의 차이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정은 가족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2017년 4월 중·고등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족 의사소통의 양식을 개방적 의사소통 VS 폐쇄적 의사소통, 성공중심적 의사소통 VS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해서 군집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가족 유형이 도출되었다. 개방적 의사소통과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1군집>, 폐쇄적 의사소통과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2군집>, 개방적 의사소통과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3군집>, 모든 의사소통 양식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 무

관심한 <4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 무관심한 방임형의 <4군집> 유형이 전체 설문 대상 중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평소 부모와 대화를 1시간도 나누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처럼(여성가족부, 통계청, 2016),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대화의 감소와 분절과 같은 문제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가족의 유형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2군집>에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7.5%에 불과한 반면, 개방적 의사소통은 <1군집>과 <3군집>에서 확인되어 약 50%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부모의 권위와 지위에 의지해 일방향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의사소통이 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류성진, 2009)와는 달리, 폐쇄적이고 엄격한 가족 의사소통의 모습보다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의 가정이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녀에게 공부와 대학, 성공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정이 비교적 많았다. 성공과 학업을 중요시하는 성공중심적 의사소통은 <2군집>과 <3군집>에서 나타나 약 43% 비율을 보였지만, 규범과 도덕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인성중심적 의사소통은 <1군집>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입시와 교육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현실적인 사회 분위기가 가정에도 투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그렇다면 각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치사회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개방적이면서 성공과 학업에 무게를 두는 <3군집>의 자녀에게서 대체적으로 정치사회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자녀의 인생에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자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가정에서의 성공중심적 대화는 자녀의 정치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대화가 자유로운 가정에서의 성공중심적인 대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과 같은 적극적 태도가 오히려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청송, 2009).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 (김은정, 2009).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고 공부와 경쟁을 중요시 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으로 사회를 직시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공중심적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전후 맥락에 따라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는 반면 적극적 양육의 효과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2군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치효능감, 이견추구성향, 관용성은 <4군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적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 시민적 역량(civic virtue)에 가까운 이견추구성향과 관용성, 정치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 그리고 방임적 가족의 유형이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결과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 단절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치사회화가 높게 나타난 유형은 <1군집>과 <3군집>이었다. 두 군집의 유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사소통 속성은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이고 열린 대화의 구조적 측면이었다. 결국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양방향적으로 잘 소통하는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가 충분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가족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대화의 구조가 성립이 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강조하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 유형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 연구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 구조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적 사회구조에 맞게 가족 의사소통 양식을 재편성하고자 했고, 그 결과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중심의 사회적 구조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이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자기보고

(self-report)를 바탕으로 실행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설문을 진행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제한해, 연구의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 집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제한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확대해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희조, 조재호 (2015). 미디어를 통한 뉴스이용과 대화가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의 종류와 대화 채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452-481.
- 김은미, 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4), 65-95.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 (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연구보고 07-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성진 (2009). 부모의 언어표현 형식이 자녀의 사회인지발달과 인지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3), 138-177.
- 손지혜, 박승관 (2013). ‘무엇이 되는 삶’과 ‘어떻게 사는 삶’: 성공 지향, 성숙 지향 가족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아동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50(1), 193-229.
- 송원숙, 심재웅 (2018).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3), 857-879.
- 신호재 (2013).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8, 229-256.
-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6). **2016 청소년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대전: 통계청.
- 이종혁, 최윤정, 조성겸 (2015). 정치 효능감과 관용을 기준으로 한 바람직한 소통 모형: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보**, 59(2), 7-36.
- 이동훈 (2009).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

- 언론학보, 53(4), 27-49.
- 임정아 (1996).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근영, 박수익, 장지영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총괄 보고서**(연구보고 11-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윤경, 정일권 (2013). 인터넷 의견읽기 및 이견수용방식에 대한 연구: 갈등대응 성향과 인터넷이용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4), 149-167.
- 최윤정, 이종혁 (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301-330.
- 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 황용석, 양승찬, 이준웅, 이원태 (2011). 인터넷에서 의견추구성향과 정치참여변인과의 관계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2), 149-185.
- Almond, G.,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CA: Sage Publications.
- Barabas, J. (2004). How deliberation affects policy opin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687-701.
- Chaffee, S. H., McLeod, J. M., & Wackman, D. B. (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Dennis (Ed.), *Socialization to politics: A reader*. New York: Wiley.
- Gallatin, J. (1980). Political thinking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344-382). New York: Wiley.
- Gallatin, J., & Adelson, J. (1970). Individual rights and the public good: A Cross-national study of adolescen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2), 226-242.
- Gimpel, J. G., Lay, C. J., & Schuknecht, J. E. (2003). *Cultivating democracy: Civic environments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untemann, N., & Morgan, M. (2001). Mass media and identity development. In D. G. Singer, & J. L. Singer (Eds.),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media*. CA: Sage Publication.

- Kenski, K., & Stroud, N. J. (2006).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0(2), 173-192.
- Langton, K. P.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ton, K. P., & Jennings, M. K. (1968). Political socialization and the high school civics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852-869.
- McLeod, J. M. (2000). Media and civic socialization of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2), 45-51.
- McLeod, J. M., & Chaffee, S. H. (1972). Adolescent television use in the family context. In G. A. Comstock, & E. A. Rubinstein (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pp. 157-180). ERIC
- Meadowcroft, J. M. (1986).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Child's role. *Communication Research*, 13(4), 603-624.
- Moeller, J., & de Vreese, C. (2013). The differential role of the media as an agent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309-325.
- Mutz, D. C. (2002).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111-126.
- Price, V., Capella, J. N., & Nir, L. (2002). Does disagreement contribute to more deliberative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 95-112.
- Quintelier, E., Hooghe, M., & Badescu, G. (2007).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Belgian, Canadian and Romanian Survey Dat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al Socialization.
- Ritchie, L. D., & Fitzpatrick, M. A.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4), 523-544.
- Sear, D., & Levy, S. (2003). Childhood and adult political development Childhood

and adult political development. In H. Leonie, & J. Robert (Ed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pp. 60-1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aring, D. D., Schwartz, J. J., & Lind, (1973). The structuring principle: Political socialization and belief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2), 415-432.

Sullivan, J. L., Marcus, G. E., Feldman, S., & Piereson, J.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Tedin, K. L. (1974). The influence of Parents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Adolescent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4), 1579-1592.

ABSTRACT

A study on differences of adolescents' political socialization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ong, Wonsook*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adolescents' political socialization based on th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in Korea. A total 520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ed a new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that emphasizes education and academic excellence in Korea. Family communication was measured in two aspects: 1) whether open communication exists or whether strict authority characterized communication patterns; 2) whether the parents focus on either personality oriented communication or success oriented communication. The result show that there are four family types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adolescents' political socialization can be differentiated by family type classified according to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The adolescents in the open structure and success oriented communication family type showed a high level of capacity in terms of political socialization.

Key Words: adolescents' political socializati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투고일: 2017. 12. 11, 심사일: 2018. 3. 12, 심사완료일: 2018. 3. 23

* Ph. D., School of Communication and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